

꼼·수·흡·연

공공기관·대형음식점·호프집 전면금연 비웃는 흡연자들

광주·전남 일제단속
186개 업소·30명 적발
과태료 364만원 부과

이달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비롯, 일정 규모 음식점·호프집 등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 뒤 흡연자들의 흡연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부족한 단속 인력을 비롯해서 버스정류장 주변 등이 아예 길거리 흡연 구역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흡연방 등 손님을 끌기 위해 변종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담배 피울 수 있는 곳 어디? =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거리나 광장 앞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흡연자들이 뿔어대는 담배 연기가 가득하다. 여성이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예 이 일대를 피해 돌아갈 정도다

종합버스터미널은 전면 금연 구역. 하지만 터미널 앞 도로는 별다른 단속 대상이 아닌 탓에 흡연자들이 몰린다. 터미널 입구와 인근 버스정류장 주변 거리는 고속·시의 버스로 도착한 뒤 택시나 버스를 기다리는 흡연자가 뿔어대는 담배 연기로 자욱하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흡연자들이 몰리면서 "살마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겠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담배를 피워댄다는 게 인근 상인들 설명이다.

버스·택시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광주

*** 금연단속 한 달 흡연 '新 풍속도'**

- ▶ 짝퉁 PC방 흡연 가능·PC 이용료 무료 내세운 '흡연방' 생겨
- ▶ 배짱족 터미널 광장·입구 수십명 모여 "단속 할테면 하라"
- ▶ 확인족 흡연 가능 여부 물어보고 입장-업주들은 "눈치껏"
- ▶ "도저히 못참아" 1~2명씩 음식점·호프집 밖으로 나와 "빠빠빠"

3287개소, 전남 1552개소에 달하지만 단속 인원은 한정된 탓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젊은이들이 몰리는 중앙·금남로의 경우 단속이 나오지 않는 취약시간대 흡연을 허용하는 음식점·호프집 등도 생겨나고 있다.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만 단속 대상이라 "담배 피워도 되느냐"며 흡연 가능 여부를 묻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종이컵을 주며 "눈치껏 피우세요"라는 목인하는 업주들도 많다. 온라인 상에서는 흡연 가능한 공간에 PC 이용료가 무료라는 '흡연방'도 화제가 됐다.

◇'단속만이 능사'?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호프집·차집·PC방 등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공공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합동단속을 벌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45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에서 663명에게 총 64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의 경우 1만1886개소 가운데 444곳(3.7%)을 점검, 금연구역표지

위반 2곳, 흡연자 12명을 적발해 업무에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도 1만5502곳 금연구역 중에서 금연구역표지위반 168개소, 흡연실 설치기준위반업소 16개소 등을 적발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흡연자 18명 중 4명에게는 과태료 24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단속 권한이 각 지자체 보건소 인력으로 제한된데다, 이들 인력이 대상 업소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은 없는 흡연자만 단속에 걸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점 등에서 단속을 하면 폭력 등의 위험이 있어 2~3명씩 짝을 지어 이동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전면금연을 시행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순천 '기적의 도서관' 10년

30일 순천시 연향동 '기적의 도서관'에서 한 학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순천시는 이날 '기적의 도서관' 명성회복과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폭들 "감히 경적을 울려?" 운전자 폭행

서부경찰 3명 구속·2명 입건

자신들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고모(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전모(25)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12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운전자 노모(33)씨 등 일행 3명이 차에서 내려자 철제외자로 내려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무등산과 소속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이야기를 하던 중, 노씨가 자신들

에게 경적을 울리고 지나간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황산 뿌리고 잔혹 살해' 40대에 징역 25년 선고

광주고법 항소심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이혼한 아내의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 나오는 피해자를 뛰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리고 흉기

로 난자한 범행이 극히 잔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4일 밤 11시 40분께 진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치킨을 배달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뛰따라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 때문에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d@

아동 생계비·후원금까지 빼먹은 복지시설

광주 동구 한 시설, 법인전입금으로 유용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이 보호 아동에게 쓰일 생계지원비로 법인 전입금을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S법인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보호 아동의 생계비나 개인 후원금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 법인 전입금으로 유용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보호가정 3곳에

서 매달 20만~100만 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가정 1곳당 6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매월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인당 3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민간 기탁자의 후원금은 별도의 통장에 입금된다. 이 돈 중의 일부가 법인 전입금으로 흘러간 것이다.

생활지도사들은 심리검사비나 피

아노화원비를 생계비 카드로 결제하고도 같은 명목으로 아동의 개인통장에서 돈을 또 빼내 법인에 전입금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전입금은 생활지도사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 측은 재정이 어려워 반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조폭 '나이롱 환자' 3억 보험사기

광주경찰 13명 검거·3명 수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 보험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 치료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양OB, 콜박스와 조직폭력배 장모(26)·양모(32)씨 등 13명을 입건했다. 또 달아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허리·발목 등을 다쳤으며 광주 지역 양·한방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뒤 보험사에 모두 74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갹긴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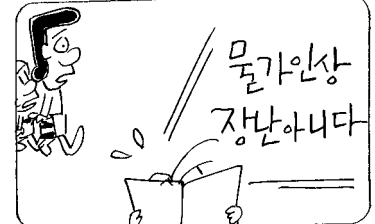
이들은 많게는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집 앞 계단에서 넘어졌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핑계를 대고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28개 보험사 등을 통해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자료와 통화내역서 등을 확보한 뒤 입원 기간에 실제 병원에 있었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들은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들로, 뚜렷한 수입이 없는데도 월 50만~1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선·후배 사이에 수법이 전수되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조직폭력배 사이에 보험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원침 (8859)



농기계 수리하러다 30대 숨져

지난 29일 오후 1시20분께 장흥군 관산을 옥당리 관산농기계센터에서 관산농협 계약직 직원 김모(35)씨가 퇴비 운반 기계에 부딪힌 적체 장치에 깔려 숨졌다.

김씨는 이날 퇴비 운반 기계 오일 누수 문제로 센터를 찾았다가 수리 과정에서 적체 장치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밧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리공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홍=김종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비행스 가려고·여고생 5만원 슬쩍

○~휴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거짓 취업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나 여고생이 경찰서행.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모(16)양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S편의점에서 여주인 박모(50)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이양은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바닷가로 놀러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전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썬계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